

미노와시노사토 회관/종이 뜨기 체험

미노와시를 이해하려면 만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노와시노사토 회관에서는 와시 장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종이 뜨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종이 뜨기 체험 코스가 있으며, 1회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여러 차례 개최합니다. 참가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미노반: 미노와시를 만들다

미노반(미노와시를 바탕으로 한 종이 규격) 만들기 체험에서는 종이 만들기의 기본을 배웁니다. 우선 펄프 상태가 된 닥나무 섬유와 네베시(섬유를 분산시키는 점성 물질)를 물에 섞어 걸쭉하게 만든 다음, 다케스(대나무 발)를 사용해 종이를 형성해나가는 공정의 시연을 본 다음, 직접 만들어봅니다. 나무 발틀에 끼워넣은 다케스를 사용해 섬유를 섞은 액체를 떠 올려 발틀에서 넘치지 않도록 하면서 세로, 세로, 가로, 가로로 발틀을 흔듭니다. 얇은 섬유 막이 다케스 위에 균일하게 퍼질 때까지 이 공정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말린 나뭇잎이나 색지 등을 넣어서 뜰 수도 있습니다. 이 공정이 끝나면 커다란 금속제 건조기 위에서 건조시킵니다. 1장(33 x 45cm)의 종이가 완성되기까지 약 30분, 건조에는 약 15분이 걸립니다.

라쿠스이시: 물로 무늬를 넣다

이 코스의 공정은 미노반과 거의 같지만, 건조시키기 전에 물을 사용해 용지에 무늬를 넣어서 라쿠스이시라고 불리는 종이를 만듭니다. 염화비닐로 만든 분이나 무늬가 들어간 금속망 등으로 종이의 일부를 덮은 다음 물을 뿌립니다.

물이 뿌려진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얇아집니다. 한편 염화비닐로 만든 분이나 금속망으로 덮여 있던 부분은 원래의 두께로 남기 때문에 비침이 있는 무늬가 완성됩니다. 사워 노즐을 이용한 무늬는 종이를 덮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라쿠스이시 만들기는 약 30 분, 건조에는 약 5 분이 걸립니다.

엽서 만들기

이 코스에서는 엽서 6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은 미노반과 같지만, 엽서 크기로 분할된 다케스를 사용합니다.

섬유를 섞은 액체를 떠서 재빨리 흘려 두꺼운 종이를 형성합니다. 엽서는 말린 나뭇잎이나 색지 등을 넣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늬를 넣고 싶은 경우는 그 위에 섬유를 섞은 액체를 더 흘려넣습니다.

엽서는 일반적인 종이보다 두껍기 때문에 건조에 시간이 걸립니다. 엽서 만들기는 약 30 분, 건조에는 40 분이 걸립니다.

집중 코스

미노와시노사토 회관에서는 와시 장인을 목표로 삼는 분을 위해 더 상세한 워크숍과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일 워크숍이나 1 개월 워크숍에 참가하면 기술 연마를 하면서 와시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미노시의 많은 장인들이 미노와시노사토 회관의 1 개월 코스부터 시작한 분들입니다. 각 워크숍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